

해방공간의 政黨史 복원 작업

냉전이념의 장막 걷고 세 연구서 나란히 출간

해방 전후, 좌·우익의 대립과 분단, 대소 정당의 명멸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활동과 선명한 정치적 이념으로 정국을 주도했던 정당에 관한 연구서 세권이 잇달아 출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人民黨研究」「曹奉岩과 進歩黨」이 그것으로, 이들 책은 우리 정치사에서 굵직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냉전이데올로기에 의해 가려져 왔던 주요 정당들의 활동내용을 밀도있게 추적하고, 그 이념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데서 학문적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활기를 띠고 있는 쌍방간의 교류 등의 변화를 통해 분단이 낳은 모순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며, 통합·분열·해체를 거듭한 우리 정당사의 족적이 대권을 둘러싼 여권의 계파갈등과 야권 통합에 따르는 파쟁 등 최근의 정치현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절실한 현재적 의미와 교훈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강만길, 和平社)은 1930년대 후반 민족해방운동의 중심 정당으로서의 조선민족혁명당의 전모를 밝힌 책. 1935년 김원봉,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 중국 南京에서 창당된 이후로 1948년 남북협상 참가를 마지막으로 해체되기까지의 조선민족혁명당의 활동상과 그 이념을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당시 민족해방통일전선의 성격을 규명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조선민족혁명당은 그 이념노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좌파를 대표하지만 이들이 추구한 통일전선의 궁극적 성격은 계급노선이 아니라 민족노선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 당시의 좌·우익 운동을 분립체제로 이해하는 한 민족해방의 올바른 성격규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존학계의 이념적 편향을 극복하고 객관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민주당연구」「조선신민당연구」등 일련의 정당연구를 통해 해방정국의 정치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온 심지연 교수가 최근 펴낸 「人民黨 研究」(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당」의 창당과 조직, 조직원의 이념 및 성향, 정책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책.

1944년 결성된 건국동맹을 모체로 하여 해



방 후에 건국준비위원회로 연결,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후인 1945년 11월 창당되어 해방정국을 주도했으나 여운형의 피살로 구심점을 잃고 분열, 「근로인민당」으로 재창립되는 역사를 지닌 것이 조선인민당. 이 책에서는 해방정국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던 조선인민당이 극좌, 극우세력의 반발로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난 과정을 세세하게 고찰하고 그 원인이 되었던 정책과 노선을 밝히고 있다. 조선인민당은 당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도적 입장에서 좌·우를 수렴하여 정국의 안정을 기하려 했고 민족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외세의 힘을 자주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민족진영이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 저자는 조선인민당의 정책과 노선이 정국의 양극화로 인해 초래될 민족적 비극을 예견하고 사전에 방지하려 했던 선각자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曹奉岩과 進歩黨」(한길사)은 조봉암이 당수로 있던 당시 진보당 서울시당 상무위원을 지낸 바 있는 정태영씨가 「조봉암과 진보당의 명예회복은 역사적 필연」임을 강조하며 내놓은 책. 일제시대에 공산주의자로 활동, 이후 불세비즘과 절연하고 민족주의적 노선으로 분단 현실에 대응하다가 이승만시대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간첩혐의로 처형당한 조봉암의 삶과 사상, 그리고 그의 정치적 노선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조명하고 있다. 「非美非蘇의 민주 사회주의자」로 조봉암을 규명, 복원하고 있는 저자는 그의 민족적 민주사회주의의 노선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책들은 그동안 학계나 일반인의 관심의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한 진보정당이나 좌익정

당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사용하는 대신 당시의 현실이 내포하고 있던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의 정책과 활

동, 노선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었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서 공통점을 갖는다.

“우리 역사학의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分斷克復史論을 수립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증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강만길 교수가 그의 책 서문에서 밝힌 이같은 말로 대변될 수 있는 이들 책의 공통되는 연구태도는 학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념적 편향에 의해 斜視化되거나 구멍이 뚫린 우리 정당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것은 해방정국에서 제기되었던 ‘분단극복’과 ‘정국안정’이라는 과제가 다시금 화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방향성을 설정해나가는 데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남정 기자

십년만에 완간된 대하소설

정동주 지음 「백정」 (전10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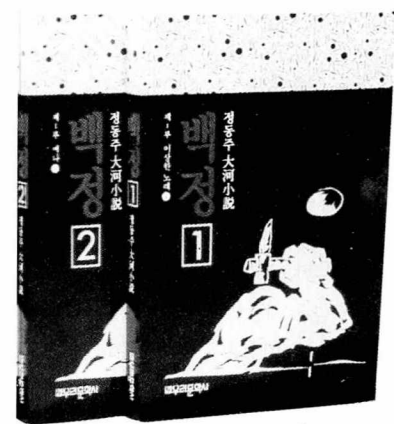
시인 정동주씨가 처음으로 발표한 대하소설 「백정」이 완간됐다. 원고지 12,000매 분량으로 전4부 10권. 지난 1982년 작품을 구상, 6년여의 자료수집끝에 '88, '89년에 1, 2부를 출간한데 이어 최근 3, 4부를 내놓음으로써 10여년만에 완간을 보게 된 것이다.

제1부(전3권)에서는 「진주민란」의 주모자 유계춘과 그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백정 출신 길상구를 중심으로 백정들의 삶과 애환을 드러내보이는 한편, 진주민란을 밀도있게 다루고 있다.

제2부(전3권)에서는 백정들이 동학과의 만남을 통해 인권의식을 새삼 각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소설의 무대를 서울로 옮겨놓은 제3부(전2권)에서는 거구이전의 자유를 얻은 백정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리는 한편, 최초의 백정선교교회였던 곤담골 교회와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무어를 통한 기독교와의 만남으로 삶의 양식을 재정립해가는 백정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제4부(전2권)에서는 강화도조약 체결 이



후 백정들에 가해지는 새로운 탄압과, 독립협회 등을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자각과 훈련을 거친 백정들이 마침내 호적을 얻어내기가 거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백정이라는 집단적 주체의 형상화에 성공, 사회변혁과정으로서의 농민항쟁의 성격을 재조명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평론가 권영민씨의 평.

우리문학사 / A5신 / 각 300면 내외 / 각 4300원